캠퍼스 생성형 AI 공존…
편하긴 한데 정보유출·사고력은 불안

대학생들, 목적별 AI 앱 '맞춤 활용' 대세
20~30대 압도적 이용률…학업·실무 활용
챗GPT 54% 1위…제미나이 뒤 이어
개인정보 유출·지나친 의존 부작용도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속에 챗GPT(ChatGPT)와 제미나이(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각기 다른 성격의 AI 앱이 공존하며 캠퍼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목적에 따라 AI 모델을 선택하는 '맞춤형 활용'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보편적 도구로 부상한 가운데 편리함 이면의 의존도 심화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대학생 이유정(23·광산구 수완동) 씨의 스마트폰에는 챗GPT 등 다양한 생성형 AI 앱이 설치돼 있다. 이 씨는 "AI 앱마다 장점이 뚜렷해 목적에 맞춰 골라 사용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86%)와 20대(83%)가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였다. 20대와 30대의 높은 이용률은 이들이 학업과 업무 등 실무적인 영역에서 상황에 맞춰 적절한 AI 모델을 선택해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서비스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오픈AI의 챗GPT가 54%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으며 구글의 제미나이가 30%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뒤를 쫓았다.

이 씨가 정보 검색과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주로 활용하는 도구는 구글의 '제미나이'다. 지메일, 구글 문서, 지도, 유튜브 등 강력한 구글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돼 구글 생태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특히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용량이 방대해 1시간이 넘는 영상이나 수백 페이지 분량의 PDF 보고서, 수만 줄의 코드를 순식간에 분석해낸다. 이 씨는 최신 뉴스나 심도 있는 자료를 찾을 때 제미나이를 가장 먼저 찾는다.

과제나 리포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퍼플렉시티'가 제격이다.

퍼플렉시티는 답변의 모든 문장에 명확한 출처를 표기하므로 팩트 체크가 용이하다.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우려가 적고 답변의 근거가 된 뉴스나 논문을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신뢰성 덕분에 이 씨와 이 씨의 친구들은 모든 작업의 최종 검토 단계에서 늘 퍼플렉시티를 선택한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돌고 돌아 결국 챗GPT'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챗GPT의 인기는 여전하다.

김윤지(여·21·북구 운암동)씨에게 챗GPT는 든든한 '심리 상담가'이자 '최고의 플래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칭찬과 함께 친절한 답변을 건네는 챗GPT 덕분에 이 씨는 유료 구독을 하면서까지 대화 횟수를 늘려 매일 위로를 얻는다.

김 씨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명쾌한 해답을 주기도 한다"며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을 붙잡고 서러움을 토로하는 대신 GPT에게 먼저 털어놓을 정도"라고 전했다.

챗GPT는 복잡한 계획을 세울 때도 유용하다. 김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숙소, 관광지, 맛집 정보를 입력한 뒤 최단 거리와 효율적인 동선을 요청한다. 챗GPT는 단 몇 초 만에 완벽한 여행 계획표를 완성해낸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개인정보 유출, 주체적 사고 능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의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씨는 "AI와 대화하다보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문득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고민없이 AI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겨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쏠쏠 IT 정보

카톡 선물하기 화면 전면 개편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랭킹탭과 상품 상세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물 목적과 취향에 맞춰 탐색부터 상품 비교와 구매 결정까지 쇼핑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랭킹탭은 선물 목적과 예산, 취향에 따라 랭킹을 탐색할 수 있도록 바꿨다. 현재 인기 선물과 신규 상품이 보다 잘 눈에 띌 수 있게 기존 2개 랭킹탭을 '급상승', '카테고리', '선물테마' 3개 탭으로 확대했다.

카테고리 탭은 메이크업·향수·스킨케어 등 세부 카테고리별 랭킹을 구성했다. 선물테마 탭은 생일, 집들이, 응원, 감사 등 선물 목적과 대상에 맞춘 14개 테마별 랭킹을 제공한다.

'유튜브 뮤직' 월 1000만명 이용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음악 스트리밍 앱은 '유튜브 뮤직'으로 월평균 이용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앱·결제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2025년 한 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최다 사용 음악 스트리밍 앱은 유튜브 뮤직으로, 월평균 사용자 수 980만명을 기록했다. 이어 멜론 634만명, 스포티파이 385만명, 지니뮤직 257만명, 플로 173만명, 사운드클라우드 117만명, 네이버 바이브 81만명 순이다.

카카오, '카나나-2' 오픈소스 확대

카카오는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차세대 언어모델 '카나나-2'(Kanana-2)를 업데이트하고 4종 모델을 오픈소스로 추가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나나-2는 지난해 12월 오픈소스 생성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한 언어모델이다.

카카오가 이번에 공개한 4종은 기본(Base)과 지시 이행(Instruct), 추론 특화(Thinking), 미드 트레이닝(Mid-training) 모델로 구성된다.

네이버페이 이용자 3명중 1명 연간 5만원 이상 포인트 혜택

지난해 네이버페이로 포인트를 적립한 사용자 3명 중 1명은 연간 5만원 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2025년 네이버페이로 포인트 혜택을 경험한 사용자는 약 30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31만명이 누적 1만원 이상 혜택을 받았고, 이는 전체 국민에서 약 33%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네이버페이는 전했다. 또 전체 혜택 경험자 3명 중 1명가량은 연간 5만원 이상을, 5명 중 1명꼴은 10만원 이상을 적립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겨울방학! MoCHAS 가족 탐사대'

국립광주과학관, 27~30일 유관기관 합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교육 프로그램인 2026 겨울방학! MoCHAS(모카스) 가족 탐사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프로그램 명칭인 MoCHAS는 'Museum education of Combined'에 역사(History), 예술(Arts), 과학(Science)의 결합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로 진한 향의 모카커피처럼 세 기관의 고유한 콘텐츠가 조화롭게 융합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민들이 풍성한 역사와 미술, 과학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MoCHAS 가족 탐사대'의 주제는 '기후변화가 인간과 생물에 미치는 변화 이야기'로 참가자들이 기후변화를 과학, 역사, 예술적 시각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융합형 체험 교육으로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이며 회당 15가족(보호자 1명 필수 동반)으로 인원을 제한해 총 8회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국립광주과학관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35년 만에 최강급 태양입자 폭풍 유입 경보

우주항공청, GPS 영향 주의 당부

관측 이래 세 번째로 강한 정지궤도 태양입자 유입 현상이 발생하며 우주항공청이 20일 우주전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위치정보서비스(GPS) 영향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우주전파 재난으로 위성통신, GPS 위치정보 서비스, 항공기 항법 장비, 단파통신 등 전파 기반 서비스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우주전파 재난으로 인한 위성·항공·통신 등 주요 분야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주청은 지난 19일 발생한 강력한 코로나물질방출(CME)이 20일 새벽 지구에 도달해 태양 입자 유입 4단계 경보와 지자기교란 4단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우주청 우주환경센터는 19일 오전 2시 56분 발생한 강력한 흑점 폭발에 동반된 CME의 영향으로 20일 오전 3시 17분 태양 입자 유입 4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관측 수치는 3만7000 pfu(1초 동안 단위 면적에 유입되는 고에너지 입자양)로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1991년 3월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우주청은 태양 입자 유입 4단계 경보에 따라 20일 오전 4시 20분 우주전파 재난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이후 지자기 교란 4단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오전 5시 30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우주청은 관계기관 참여 24시간 우주전파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위성과 항공·통신·전력 등 분야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